

흉부외과영역에서 레이저의 이용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

김 광택 · 김맹호 · 이인성 · 김형묵 · 김학제

흉부외과의 영역에서의 레이저 이용은 여러 방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레이저는 물리학적 특성상 에너지 집중도가 높아 조직의 무혈절제와 조직의 과잉 육아형성이 적고 감량조작을 통하여 절제범위를 축소시켜 기능의 보존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원 흉부외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레이저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기관내의 협착 및 육아종의 형성과 기관내의 종양의 발생은 치료하기 매우 힘든 질환으로 본원에서는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레이저 섬유를 삽입하여 협착부위 혹은 종양부위에 KTP 레이저로 치료하여 기관지 협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레이저 소작술을 실시한 환자들은 대개 삼판의 풍선부위(주로 기관루가 형성된 자리로부터 5cm, carina 상방 2~4cm)에 주로 기관지의 절반이상 커진 육아종이나 협착이 있었다. 기관지내의 협착병변은 전벽에서 2명, 후벽에서 1명, 원모양으로 자란 경우가 2명이었다. 육아종이 자라난 부위는 레이저 소작술을 실시하기 용이하였고, 원모양으로 자라난 경우는 시행하기 어려웠으며, 협착이 재발하여 레이저소작술을 반복실시하였다. 레이저 소작술은 25.4 ± 5.9 분의 시간이 걸렸으며, 1768 ± 365 J의 에너지가 조사되었다. 합병증으로는 기관지경축(bronchospasm)의 1례와 2례에서 Debris에 의한 재기관지경검사를 실시되었다.